

#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전문박물관 됐다

남도의 젓줄인 영산강을 배경으로 드넓게 펼쳐진 나주평야는 고대시대부터 지배세력의 중요한 터전이었다. 특히 다시면 복암리 일대의 고분은 고대 지배세력의 수준 높은 유물들이 출토돼 관심을 끌었다.

학계에서는 복암리 고분이 고대 국가 마한의 지배 세력들의 무덤일 것으로 본다. 복암리 고분에서는 옹관을 비롯해 독널 등 다양한 수장품이 출토됐다. 특히 복암리 고분전시관은 2천년 전 고대 마한 제국의 역사적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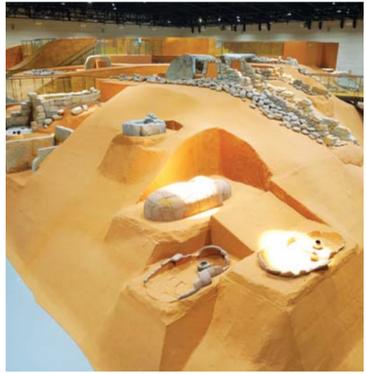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격상돼 눈길을 끈다.

고분전시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을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공식 등록했다.

전문박물관은 학예사 1명 이상과 100㎡ 이상의 전시실, 수장고, 환온·환습 장치 등의 전문 전시 시설을 갖추어야 자격이 된다. 이번 전문박물관 격상으로 고분 전시관은 학예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 가능하며 지역 인재 양성도 가능하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비사업에 지원, 시행할 수 있으며 문화기관과의 다양한 교류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연건축면적 4만2211㎡로 개관한 이곳은 인근의 복암리 3호분 발굴을 계기로 세워졌다. 복암리 3호분은 1996~1998년까지 발굴과 조사가 이뤄졌으며, 영산강유역 고대 문화에 새로

2천년 전 마한 역사적 발자취 한눈에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 전시·교육 확대 국내외기관과 역사문화 정보교류 추진



실물로 재현된 복암리 고분.

운 전기를 마련한 유적으로 평가돼 국가사적(제404호)으로 지정됐다.

당시 봉분만 보이는 고분이 아닌, 안에 조성된 다양한 무덤방을 공개 전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모형복원 전시가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구제화됐다.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격상된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전경.

(고분전시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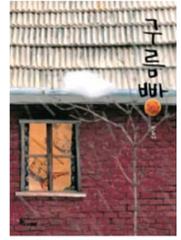
박영훈 학예사는 “이곳에는 유물전시에만 한정된 다른 박물관과 달리 실제 발굴된 고분의 모습이 전시돼 있다”며 “무덤방과 부장된 소장품들은 고대사와 고고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유물”고 설명했다.

고분전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돼 있다. 지하에는 다양한 형태의 무덤방을 실물 크기로 재현한 상설전시실을 비롯해 기획공간인 특별 전시실이 있다. 지상에는 체험, 교육 공간을 비롯해 북카페 고분군 전망대가 마련돼 있으며 야외에는 발굴된 유적을 토대로 복원된 수장품이 전시돼

있다. 고분전시관에서는 탁본체험, 마차만들기 같은 상시체험과 부채꾸미기, 복조리 만들기 외에도 명절프로그램(설·추석·정월대보름) 특별체험이 운영된다.

고분 전시관은 “전문박물관 격상을 계기로 영산강유역 고대문화에 대한 전시와 문화체험,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국내외 기관과 역사문화 차원의 정보교류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구름빵’ 작가 백희나 아동문학계 노벨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수상

그림책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가 31일(현지시간)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했다. 상금은 500만 크로나(약 6억460만 원)다.

스웨덴 정부가 2002년 제정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은 ‘뽀빠 롱스타킹’을 쓴 스웨덴의 유명 작가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정신을 기리는 상이다. 올해 67개국에서 240명이 후보로 올랐으며 한국 작가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사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백 작가는 소재와 표현, 제스처에 대한 놀라운 감각으로 영화 같은 그림책을 통해 외로움과 결속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면서 “작품은 경이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며, 감각적이고, 아찔하면서 예리하다”고 평가했다. 또, “백 작가의 기법은 팝업북뿐 아니라 종이 인형과 종이 장난감 책이라는 오랜 전통과 연결된다”면서 “백 작가는 고도로 독창적인 기법과 예술적인 해법을 통해 이 장르를 개발하고 재탄생시켰다”고 설명했다.

백 작가는 스웨덴 일간지 DN과의 인터뷰에서 “믿어지지 않는다. 매우 놀랍고 행복하다”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아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2004년 출간된 구름빵은 고양이 남매가 두둥실 하늘로 떠올라 아침을 거른 채 허둥지둥 출근한 아빠에게 구름빵을 갖다주는 내용으로 텔레비전 시리즈와 뮤지컬로도 제작돼 인기를 끌었고, 캐릭터 상품으로도 흥행했다.

그러나, 백 작가는 출판사와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계약’을 맺어 출판사로부터 받은 저작권료와 지원금이 2000만원이 채 되지 않아 출판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백 작가는 출판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백 작가는 1971년생으로 이화여대 교육공학과를 졸업했고, 구름빵으로 2005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 광주비엔날레재단, 5·18 40주년 특별전 ‘윌슨 전시’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5·18 40주년 기념 문화행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1일 ‘5·18민주화운동특별전’ 중 4일 개막할 예정이었던 윌슨전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윌슨을 시작으로 대만 타이페이, 서울, 광주 등에서 전시회를 열고 2021비엔날레 기간에도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5·18의 동시대성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이번 전

시에 베를린 비엔날레 예술감독을 역임한 우테 메타 바우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재단은 코로나 19 확산 추세를 살펴봐야하겠지만 5월 개최 예정인 서울 전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일정은 1일 현재까지는 기존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9월1일 개막해 11월까지 이어지는 2020 광주비엔날레 역시 아직 시간 상의 여유가 있는 만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여성가족재단, 7일 성평등정책 현안 워크숍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미)은 7일 오후 2시 광주여성가족재단 8층 강당에서 성평등정책 현안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은 4·15 총선을 앞두고 성평등 광주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역 정책을 점검하고, 선거 때마다 제안해온 여성 정책들이 얼마나 반영되고 입안되었는지, 입안된 정책들이 지역사회의 성평등 구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여성계와 정당 여성위원장이 참여해 성평등 정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정당 정책 발

표에 앞서 한윤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2020년 총선 성평등 정책 입안 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각 정당 정책발표에 이어 김경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이 광주지역 성평등 정책을 점검하고 성평등 정책을 제안한다.

최희연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박명희 광주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이영숙 광주여성단체협의회 영클럽 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각 정당의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토론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최양숙 시조시인 ‘새, 허공을 뚫다’ 펴내

광주 출신, 두번째 작품집...전통의 울격·서정성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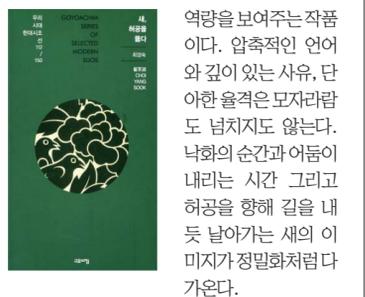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속함이 없어 보이는 한 여인이 있다. 그녀와 난 운명처럼 서로 목여 있고 언제부터인가 꿈꿨던 숨겨둔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때로는 눈물 흘리며서 때로는 흥분하면서 밤새도록 놀아주다가 나의 시는 시작되었다.”

광주 출신 최양숙 시조시인이 두 번째 작품집 ‘새, 허공을 뚫다’(고요아침)이 펴났다.

첫 작품집 ‘활짝, 피었습니다만’ 이후 2년만에 발간한 시조집에는 개성적인 목소리와 형식, 운율이 잘 어우러진 작품들이 담겨 있다. “쉽게 읽히면서도 인간의 숨소리를 허물없이 보여주는 뜨거움을 진솔하게 쓰고 싶다”는 시인의 말처럼, 각각의 시조는 오늘을 사는 이들의 내면을 응시한다.

“떨어지는 꽃을 향해/ 어둠이 밀려왔다// 꽃잎과 어둠 사이/ 어둠과 꽃잎 사이// 허공이 피어 있었다/ 새, 허공을 뚫었다// 꿈지가 통과할 무렵/ 구멍 속 길이 났다// 물부니 만들어낸/ 구멍들 사이로// 꽃잎을 한 장 물었다/ 새, 허공을 날았다”

표제시 ‘새, 허공을 뚫다’는 시인의 문학적



역량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압축적인 언어와 깊이 있는 사유, 단아한 울격은 모자라함도 넘치지 않는다. 낙화의 순간과 어둠이 내리는 시간 그리고 허공을 향해 길을 내듯 날아가는 새의 이미지가 정밀화처럼 다가온다.

이밖에 ‘겨울매미’, ‘백련사 동백’, ‘오래전 한 아이는’, ‘감금되다’, ‘산들은 그리운 곳에’ 등도 수작이다. 전통의 울격과 서정성, 그리고 세련된 언어감각과 시적 형식화는 확장된 시조의 지평을 보여준다.

한편 최 시인은 중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활동했으며 1999년 ‘열린시조’ 호수로 등단했다. 2015년 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 시조문학작품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사재시동인, 울격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